

서 아모부모라도 노후실러이지 내가 어디서지던지 천히되었던티가업도록품
형을가지리라

에그내원슈를 엿지할면다갑하속이시원하게히보사

나며
향고눈물을 흘리며 처량히안젼더니 이썩맛참 인항할뎡이 드러오다가 앓썩늘

아-웨저리실심향고 안젼소 무슨큰걱정이잇셔요 이썩까지 이뉘양반이아니

오섯소 갑々향고썩々향야 그리시오

에그사뉘양반들은 그런스정을모르시지 편지나종々향실일이 지 밋거라 향고

그리시지마는

너편네스정에는 무정 < > 향다향원다

그리언제나 오신다는 괴별이나잇셔요

향니츨희가편지를 책々접어너흐며

이달스무날근너오신다고 편지향섯셔요

향거늘할뎡이 속맘으로

을타되었다 이날을썩가엇더케되나

열열식날이묘시참이나가 스무날은 스시참이엇다 아참을썩가 지나면 스향상

충(已亥相冲)저녀히시참이엇다

손가의게 두가지 계책을통고향여 낮과밤에 흘받게업다

향고것났호로 반기며「몇칠후면오시겟소그러 언제나 녀즈들이 남즈와 동등티

우를밧으시 어디로가던지동티부인향고 다니는 남즈를만나야할터인티 임의로

할슈잇나 아즉사지노예티우를면치못히 아모렛던지젊어 돛케스소「향고니러셔

나와손가의게 비밀히 연통향엿더라

스무날아참에 근너오지아니향미 츨희가눈이싸지도록기다리고 안젼더니 저녀

이되여더욱 도민향던츠에 밧갓문소리가 남을돛고「거누구요 인제오시사」향며

나오다보니 인항할뎡이드러오며「오날 이뉘양반이근너오섯소 나도갑々향야왔

던일이오」향는지라 츨희가반기며

(춘) 예! 아주 아니 왔습니다

(할) 에그갑々하시겠소

(춘) 마누라님도 고마워라 넘려하시교 오셨습니다 어서 드려옵시오

(할) 천만에 말씀이오 너무 뒤집을 밧으니 석 도로혀미안하오 또볼일이 잇셔가오 리얼이나 모리나들이 잇는디로 또오겠쇼

학교가더라 류성이자괴부모 압해나아가 이설죽고학교극경극효하되 중시하락 지안는것을보고 죄송흔중에도 춘희의스정이심히싸하야 먼저편지하교 그날스 즈에집에서떠나누라니밋쳐아참물씩를타이지못하야 저녁물씩에근너와집으로 드러올시디문을열고 드러서자 월방편으로쫓츠웬놈이나오며 무엇으로 아리또 리를휘갈기는셔술에 타너머지며「악! 아이고々々」하는소리에 안방에서춘희 가버락쇼리를질너「거누구요하며나셔々엇지할줄모르거」를류성이한참이나있다 가정신을추려「내야내야웬일이람 그런몸술 도적놈을잡아야 하겟다 이리좀와 니러설슈업셔」하는말에섬짜놀나며 버선발노뛰어나아가갓드러니르키며「에그

머니 엇던도적놈이싸라와 어디를싸려 이리셔요 이를엇져나 그놈을잡아야 하 겟습니다마는 어셔드러가야하겟는데」하교 별々떨며 부축하여안스방으로드 러가 다른이야기할여가업시 덩강이를거울쳐 싸린상쳐가 압하 고동쇼리에 춘 희의 오장이다스을게되여 밤식도룩 졸경을치다가 그잇흔날 아참에 겨우정신 을 추리는것을보고 가장정다운말이나 드를가하던츠 리웃아히가 편지한장을 드리거늘 류성이 압흔중에도 반겨떠여보니 시면에 비밀히보라하엿거늘척접 어쥐고「여보무엇을 먹을생각이잇쇼 어셔가져오구료」하니 춘희가 니러서 음 식을추리라 나간사이에 자세보니 하엿스되

비밀히보시오

류형과 정의상동하니가 충고하는말이오 노여워마시오 형이근너가시던날 디부인싸셔 드러오시는길에서 웬사름이 반기며 시동셔여려번 만나보앗느 니 웨모르는데하느나하며 싸라오더니 디문압헤셔 머이라머이라하교 가는 일이슈상하더니 어제밤에자나다 드른죽 형이웬놈의게 디를마즌모양이나

상위하게 드러가지는 못하고 글자로 문병을 오니 었더하시며 과히상치나아
니 하섯쇼형도 료량이잇슬터이저마는 폐일연하고 이곳저떠나시오 그리하고
는 교제가 미우어려오리다 그러나 료류장화갓고보면 곳거절하시느것이 도
홀듯하오

하엿거늘 보기를다하미 눈에 황이받치며 괴가막혀 당장에무슨 요절을느려다
가 스투를농쳐싱각한다

이 친구는 고명훈신스요 덩죽훈군조라 자기도화류계(花柳界)에 피가홀경우
에 회심하여 품행을 도저히곳치고 친구의게티하야 신실함으로 사회에서
모범적인물이 니게티하야 이런말노 동귀히쥬니 비면히알고는 잊처럼권고
홀리가업고

더계집은 또그러하렸다 츠음브러 내맘에업는 일이라서 이욕을당하게 되엿
서 당초에경강에서 떠날썩에월곳으로가즈는것이슈상히또손 종일이그친구
말도싱각이난다 운양셔술머을썩에 월곳으로간다는 이야기를듯더니 그곳에

본리아는사람이업스저 할말이눈치치인 슈작이엇다 예—라 내가즐겨이리흔
일이나 더하즈는티로 하엿스니가 이번에 이런일당하고 치떠러지게이러나
더러나 시비할것업시 더듬기도흔말노 스정과의회다못하면 건과잡고 같나
서리라

데십구회

하고안졌는티 춘희는이런줄은모르고 음식을정성껏 츠려들고 드러와권하는티
류싱은 불쾌흔스적이 드러나며잠사히 먹는데마는데하고 련히「응—응 후—
후」농며시원히 말은아니하니 춘희의 속이랄만하더라

제상에아니된일도 년씩가잘맞게다 화전총화(花田衝火)하는 더몹슬것들이
음흉흔계책을쓰는티 돕스즈가히스즈가되고 식즈우환의 편지가남의 비외잔
에악이물(惡礙物)이되여 류싱과 춘희잔에
(너가 근너오기는 썩흔스정이 잇셔.....
허々 공교하겟다 그런도적놈이.....)

으—죽지안은것이 다행이야

「엇더하시요 좀저리지안습닛가 엇지하던지 그놈을 잡아설분하야 하겠습니다 또 무슨걱정이 잇셔요

「일전에편지에도 디가말했쇼마는 부모씨불효조가 되기로말하오 우리셔로 만나지아니할제음 치고피츠남됩니다 나되고셔는 피룬란상은 못하겠셔

「부스간에 무죄히내바리는것은 인륜에온당히요 나를이갓치천디하오 내가 무슨죄가잇셔 내바리시료 바로죽이시면 한이업겠셔요

「나는할수업스니가 스정파의야 내가셔러지자아니하시하야 그몹슬흉계를 씀여.....응

「흉계라니 이런과막힐일이잇나 그리엇던년놈과 흉계를씀엇단말이오 성사를잡아

「어제그놈말이지 웬잔말하느냐 그리나를 죽이려고하야 오를가
「아—이성사름죽겠네 그도적놈이 어딴셔썬츠와셔 그리히스스 성예를쓰는

구료

「여바라 네가싱겨 ~ 불복하느냐 그놈이바로 안에서나와 드러오는 내정강 이를 이렷케사렸다

「고니보이며」이것이 뒤썬츠온놈의게 마즌자리나」하며 옷을활々입으며 또 하느말이

나는못싱겨셔 네압잡이만셨다 또잡이라던지 세간이라던지는 내것이 하나 업다 네가어나놈하고 살던지또그런형실은 바려야살이라 내가아모도록도 흔났호로 죄를드러너지안코 가마니갈나셔자는 일이불쾌한말이나왔다 나는

「곳가논터이니 그리알나
「고 쳐나러셔나오는것을 춘희가금쳐잡고」이를엇져나」호마디소리에 괴씩하거늘 류성이 휘도라다보고「오—라이계집이 나와원수를 미드려나 웨이버르 장이를 하노피어나는것을보고 가리라」하고 그수족을유무르며 다시드려다 보니 그악척할심각은 스러지고 도로혀 측은한맘이나더라 한이식하야 숨을

뒤쉬이며 도라는듯 똘마누라가 밧그로쫓쳐살니 드리오며「이딴에서 무슨
 변이잇스스냐 늑은이야허물호실나구」하며 방에드러와 몸이소스라지게 놀나
 춘희의몸을 흔들며「여보~ 정신초리시오 젊은뒤외간에 어굴호스정이잇
 더라도 이리호실것은 무엇잇소」호는소리에 눈을번적쳐보고 니러나 할멈의
 두팔을잡으며「아이고 내가 었지호다가 정신물나스스 고맙습니다 오섯소
 호더니 다시류성의 압해닥어안즈며
 「여복시오 사람을그렇게 몰나보오
 「당초브터 알아주엇지
 「그리가시고져하니 나를내바려야 올겟소
 「아니날다려 내바린다히셔는 말이아니되지 그나더나 사늑즈식이 한번똘호
 쫓이잇스니가 아모리말히도 갖치살수는업지 지레말고 갈터이라
 「그러면 나는이미히 죄진모양이니가 어더서지던지 발명호날이 잇슬터이오
 다시나를만날뉘에 외면호지맙시오 뉘세코다른 남편은섬기지아니호터이오

죽고또죽어도

「외면호리가잇서 그뉘에는 상관업스니가 더욱반가워 호터이지 슈절호겟단
 말이야 초소위두번 식집가셔 렬녀된다는 격이로군

호고 도라셔 나오는발즈국에 피가고일만호고 물스럼히 바라보는눈에서도 피
 도나올만호더라

류성이 선창에나와 별노목뉘호곳업시 형인비에 올라무르니 맛츨경강으로 올
 나가는비라 혼즈속으로 탄식호는말이

내가 낮독잡이의게 호녀이복욕을 호겟다 학생신분으로 될일인가

박학산뒤에서 만날뉘브터 품형이 단정치안아보이더니 또를뒤문역에서 인

스호는말이 이상호연분이라호기에 패념이되엿고 약소년의게 스을여시동서

그광경을당호뉘에도 인정이참아 떼치고나셔지못호야 오날스스지출물스군

노릇만호엿구나하릴업지자금위시호야 회과자척(悔過自責)호는내가남은엇

지호던지 나브터잘호도리를 츠려야호겟는데 집으로도라가자니 가천씨셔업

절하셔사 이소문을 드르시면 필연코무스치아니 할터이오 깃닥하면 맘이달
 써 부모씩불효가되고 사회에바린물건이되날에는 암만너우친들 무엇하리
 그러면 엇지홀고 학문잇셔야 생활이곤난치아니 할것이오 또리욕에빠지자아
 니 할라면 의뢰치마라야 할겟고 자활(自活)하즈면 슈공이데일인즉 공업학교
 에 입학하야졸업한이후에는 기계창도설시하고 영업부도확장하여 건전생활
 (健全生活)하여보리라

형제업시살아도 친구업시는 못사는법이니 내가이제 북그러움을 무릅쓰고
 남상티의게가서 비진소정하여 나의목덕되로 되리라

하고 그비로경강에 올라가 도정리에셔 내려바로문안 남상티집터문안에 드러
 서초초니 이씩맛춤저녁 식사가되여집에 드러왔다가 반기며「어! 세형인가 그
 간시봉안녕하시고 또자미잇나」하며 방으로응접하거늘 류성이 좁벗<하다
 가겨우입을 열어「시동셔그세음다하고셔나 내려가다가 춘희와 의른호던말이며
 알곳가서 거점하고자기 혼즈부모씩 도라와이실죽고하고 효로봉양하되 중시

허락지아니하셔기에 도로건너가 밤에드러가다가 미맛던말이며 소정과의하고
 친구차져와다시 공업학교에 입학하즈고 뜻을명훈이야기를 낫々치결과하거늘
 남상티듯기를다하미 속으로「창기출신이란것은 도져하곳치기어렵지 류세형도
 의과남아로다 잠스간의도에싸즌모양이나 지금은스상이고상할걸 나의친구가
 아니고 못싱긴인물애고보면 제스간에 염치업다고 다시쳐져오지아니할련마는
 허물을 가려두지아니하고 맘을허락하니 가위평성벗이로다」하고 혼연훈낫호
 료하는말이「그러할뜻하네 세미곡진훈말은 셔々하하세 내가어디서지던저스
 렷이밋치는되로 주선히보겟네 어셔공업학교미술과에 입학할준비나하소」훈후
 에 관곡히 되접하니 류성은 이마우헤 숯불듯는듯시 면난하여고기를 들지못
 할더라

데이십회

사람이 간곳마다정드러듯코 살아싱리별은 싱초목에 불이늘만 할겟다
 슬프다 춘희의소정이여 후암동중에 드러방향을 모르게되엿스니 어나셔에 광

명훈런디간에 원한을 푸러 바리고 화락하게 살야 불가
류세청이 썩나던 날에 독혼 맘에 서 죽을 생각 썩 날러니 펼쳐란 식하는 말이
에그이 노릇을 잊지하노 나도 이곳서 썩나서 죽던지 사던지 양단간에 귀정하
리라

처음 목적은 디로 보통 학문이나 비와 자활(自活)하고 남을 의뢰치 마랏스면
악마(惡魔)가 뒤를 따르고 스디(死地)가 압출막더라도 또 다른 남편을 좇지아
니 할 것이오 불행하여 강포(強暴)의 욕을 당할 지경이면 피할터이오 정할수
업스면 자결하여 나의 번맘을 저바리지 아니 할리라
하고 슬피우니 철석간장이 다 녹을너라

흉계로 류성의 너의 의를 성리별식허는 인항할 맘은 맘에 잊지디 견흔지 것눈이 살살
감기 지마는 성공을 목적으로 가장위로 하는 말이

아! 이세상에 싹흔스정도 다만코 저런 변이 있나 염치에 안히틀 너바려 나는
저런 셀보기 시려 소년애 파부되어 거저 헛엇지 더런 불상흔이를 보면 참아 못코갈

슈업서

여보화도 풀겸 구경도 할겸 나와 갖치 인항으로 가보시료 나는 혼저사는 터이니
서로의 지도되고 또 공부도 할슈잇스며 저변이잇스면 너인장스도 허볼슈도잇
서이곳보다는 넓은 곳이 윈다 예잇다가는 또 무슨 변이 잇슬는지도 모르고 디
단히 위티할구료 나아는 디로 말아니 할슈 업소

하며 위하야 눈물을 흘니거늘 춘회는 천만 뜻밖게 성소박을 만나 잊지 할료량이
씩나서 지못하다가 할멈의 유리흔 말을듯고 심분디 헝하여 스레하는 말이

고맙습니다 죽게된 인성을 잊처럼고 념하시니 가라치시는 디로 봉승할겘스오
나 몇가지의 론을 일잇습니다

하고 짐명도 쳐져 보고 가장 짐물도 살피보더니 할멈을 향하여
(춘) 디관절 짐을 잊지하노요

(할) 방미흡시다 그러

(춘) 세간은 잊지하노요

(할) 독리 그릇부정고는 다 팔고 의복너흔 괴물은 비에 싣혀 내려갑시다

(춘) 그러면 당신이 주선옵시요 저는 아모정신업습니다
(할) 그는 녀려마오 오날이라도 짐거간불너티이고 세간도 곳팔되 갑손싸게합시다

하고 그날 노작자잇는디로 팔고 또세간도 파누라니 슈슴일동안 할멈은 손가의
게 연동하여 약시약시하라하고 동리사름들은 남녀물론하고 디단히 서허허하
더라

춘희의이스짐비에 할멈도함씩 인항에나려와 축현으로드러와더라 안돈흔지슈
일만에 할멈이 춘희의마음을 위선드레질히본다

(할) 암셔류가의 일이또생각이나노 어나사름이 왔다 그후려싸려스서 그날은다
는편지를본연이알고 그것을히

(춘) 나를 죽이려고 어나몹술도적놈이 싸라와서 그리히든지모르되 그도나를
의심을만도하와요 도시나의 박복흔탓이지요

(할) 그러면 도모지 성면부지가 욕심을니고 왔싸가 그리히셔

(춘) 알수업소

(할) 류가사 제집에 먼저가던 날성문에서 안다고하더라니

(춘) 그놈도 웬놈인지

하고 별안간에 가슴이 두군군 ~ 하며 머리삿치 좁벳좁벳하여 속으로 잠시간
헤아려본다

에그 이할멈도 흉물이로구나 월곳서히동흔던것과 다른눈치가 보이더니 오
날디말을 드른즉 나를유인하여 온모양일다 더음물의 속을되썸으리라

하고 신세한탄하느말노 할멈의 속이뒤집어 보이도록

(춘) 당신은 엇지그리 자세함닛가 류가는 언제청실홍실 느른남편인가요 소
정파의면 고만이지 성사름을 모히잡아 누군지는 모르되 류가를 떼여노코
야엇지하려니가 그계교를 씌닌것이야요 그런의스는 누가너엿스가

(할) 덩녕담된사름이 그리흔거로군

(춘) 글세의 스님 사람말이지오 어티 좀보앗스면

(할) 잘흔일갓흐면 찾기를기다려 밭쳐차져왔슬터이지 그리보면 엇지호료

(춘) 나를엇지호려고 그리호였나냐 무러보아 히롭지아니호일이면 그말터로

듯게요

(할) 아마다른 사람의게로 보되주려고 그짓을흔게로군

(춘) 니말은드러보지도 아니호고요

(할) 더런제 니외정이차떡갓한데 그런말히셔 쇼용잇셔 그일노말호면 등치고

비만져주는 수작을호여야지 호—호

우스며 춘희의 손을척쥐고 또호는말이

(할) 여보 그러치안소 그만호면알아듯겟소

(춘) 그러면 당신이 그게척을 씌여닛소그러

(할) 응—그러니 엇지하

(춘) 아니 글세 그사람은 누구야요 한번보앗스면

(할) 흥—흥 그양반은 총청도 부자인터 서울셔 비로오다가 김포운양셔 잠스

간보고 담이나더라고 나를위정다리고 월곶가셔 그모양을히셔 지금보면엇

지홀터이야 반갑게모시거나호면 또호스는더홀수업게홀터이야

(춘) 비면히 알고호신일이겟소 어셔보게 히주시구료 공연히 세월보니고 뜻

업시 청춘을늬겟소

(할) 응—내말이 그말이지 그티로 말히셔 오던지마던지가보리다

호고 니러셔 나가며 혼즈말노「사람이 살다가 이런수에 살지 기성노릇호던

것이나가 참잘도도라스다 세상에 진정못호노릇은 여림집 유부녀 썩여니기엇

다 이것도 그러케 함들줄만알앗더니 눈소타기로구나」호고 아기죽—손중

일이 려관에가셔 니용을티강말호고 죽기시다려오더라

이씨 춘희의 맘에엇지절동호던지 할멈에 전후음흥호말을듯는 당장에 요절을

니겟저마는 니를악물고 참으며 그년놈이 오기를기다리더니 거무하에 쳐사다

어서며 할멈의 소기로 인스를식한다

「여보두분이 일면여구헌터에 피츠말씀하시오」하니 자미업는 수작이나온다
 「이사람은 충청도홍주늬포사는 손종일이오」

「예—이사람은 미리알으신가보오」

(손) 티단히 반갑소 내가운양셔 잠간보았소 그썩브터 주선헌결과로 오날
 이곳에서 가약(佳約)을 밋게되엿소그러

(춘)그러면 그썩주막에서 류싱과 갓치노섯슴닛가

(손) 바로알앗소 내욕심것히셔는 곳세슬맘이잇섯는걸

항면서 선석 손목을쥐는것을 춘희가 휘그썩려치고 도스르며썩짓는말이

어—고약혼손가야 불건인정하고 불교의리하고 음흉잔혹헌게교로 남의인연
 을쓴코 남의은의를 업시고 억능강간하려더니 나의큰원수로다 분골쇄신(粉
 骨碎身)을 하더라도 손가를업시하여 또다른스름의게는 폐히가업게하리라
 하고 또할멈을 도라보며 썩짓는말이

드림고 천하고 음흉하고 요사헌것은것이 나와무슨원수젧느냐 그런몸슬노

릇을식혀 네집에셔지 유인하고 더작자의게 파라먹으려더니 일이될썩십호
 나 너의들은 증역을히보아야하리라

항며 말이런다라나오려하느니 손가는 밋친놈셔들듯 겁결에「이게집이 웨이모
 양이야 처를좀마져야 하겟다」하고 할멈은 제시간에 코썩이져려「늬은이보고
 욱을막하네 닥달을하리라」하거늘 춘희가 니려셔며「너의들이 나를엇지하려나
 나 이곳도 경찰셔가 잇슬터이지 나와갓치가려느냐 포착을당하려느냐 내몸에
 손만티여보아라」하고박그로나아가려 하는것을 손가는 막고 할멈은붓잡고 한
 촌힐난흥동안에 죄진자의 마음에는 겁이나고 악증을 밧는녀즈는 악이붓밧쳐
 스싱을불고 흥경우에 손가가 할멈을향하야「나는 가겟소 더계집아니면 또기
 싱업소 나는몰나엇지하던지 경찰셔에는가저못하께하오」훈후에또춘희를향하
 야「나는 꽤々흥것이 무엇잇디 네근본이 하여하던지 기싱출신이 누구를엇지할
 터이나 경판이라도 다알아먹느니라 달닐썩드러라 공연이 왓즈깃결하면 네모
 양만흥하리라 나는 자—아잔다」하고 뒤도도라보지안코 다라나더라 그썩에는

할머니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며 춘희가 허달나느도록 여일령시행하여 월곳셔가
지고 나려온 짐물을 다 방미하여 밧치고쳐분만기다리더라

데이십일회

꽤하다 춘희여 만겁디옥을 버셔난듯시 맘이 시원하되 어디로가야 도홀느디싱
각하야 본다

내가이제 벽항궁촌(僻巷窮村)으로 가있는것이 엇더홀고 그도아니될말이지
강포의욕도무셔운일이어니와 나의목덕홀일을 일울수업슬터이니 엇지하던
지 디도회로가야하리로다 그러면 어디로갈고셔울노가도씩합당치못하고디
구나 부산갓흔곳으로 가는것도 관계치안치마는 별로 의스가업고 평양의쥬
로 잔디도반가온일이업셔 올라기성으로가리라 장단풍덕이 접형이고물화가
교동하느곳이오 정도가미우열년도회라 너가 예셔지완하다가는 또무슨욕이
잇슬느지도 모르겟스니 오날노셔나라라

하고형장을 수습하여 할말을 작별후 경인선 축현역에서 기성표를사가

지고 각처에올나셔즈 초장이 호각일성에 썩나더라

가련하다 춘희의 홀몸이여 류리창을 의지하여 동북편을 바라보니 어나듯부
평역도라셔즈 소스에서 정거하고 또셔나오류동 영등포 로량진 철교근너셔
룡산역에서 옮겨라고 경의선으로 내려올셔 자연히 슬픈싱각이러나셔 가슴에
셔는 두방망이질을하고 눈이 락 엇우워 엽해사름잇는줄은 잠스간너셔바리고
나가는줄모르게 괴관초가 썩물너스게 한숨호번을 내쉬며 속으로 혼즈탄식하
는말이

에그 괴막혀 썩인가 성시인가 내가암만히도 마귀의게 홀넛느보다

나의원수는 곳々마다 엇저그리만이잇는지 사느것이 그리위우셔

내가엇지하던지 맘먹은티로 원풀고 한풀고

남편원망은말자 남과갓치 금슬이 돛코화락홀터이면 첫식집에 과부될리가
업섯겟지 두고~ 만나는것을 악마가해살한다 남편이 이제어티잇슬고자
괴부친이 너무암절하시다니셔 다른곳으로 가잇스렸다

오나 맘만바로먹자 되면되고 살면살지 어셔나릴정거장이나 되엿스면
이렇게 자문답을 향누라니 괴석이달나 엽해서보는 사람이 의심이업지 못할
려라

마진편거을 상에안젼던 늑은부인이 그처음드러와 안줄씩브러 힘척이 이상함을
보고 유심히바라보는디「눈을사르를 내려감고 입안에말노종얼々々 향기도향며
코기를속삭／＼ 향기도향며 몸을진저리치기도향며 손길노 가슴을툭치기도
향며 또여러가지 형용이 화스김에 도망가는 녀즈가아니면 실성한사람이라」
참다못하여 은근히 손으로 그몸을 쑥찌르며「여보젊은 디네날좀보오 잠드시
리다어는 정거장에서 나리시료」향니 섬썩놀나며「예－예 예가어디오닛가 정
신뜻코 잇섯더랫네」향며 련다라인스성이보인다

(젊) 마누라님은 어디로가심닛가

(늑) 나는 의성으로가고 닉집도의성이오 디네는어디로가고

(젊) 저도 의성으로갑니다 고맙습니다 잠드러모르고 지는갓슬변향엿지 그러

코보면 벌금은물면셔도 차장이에게 육을당할변향엿습니다 그러

(늑) 아즉 멀엇소또 두정거장이는 지는야되겄소 그러나 디네혼즈가시오

(젊) 예－의성은처음인데요

(늑) 어디가시는데

(젊) 장단셔면 이올시다

(늑) 의성셔 멀지안코 또보니셔 의명부인인디 어나녀학교々々요 전도부인이

오 우리집리웃에도 더런젊은이들이만치

(젊) 예－반가워라 이번에 만나볼수가 잇겄습닛가

(늑) 어렵지안치 그러나 룡산셔 오르시는것을 보앗소 어디를 단녀오시오

(젊) 구룡산을 들녀옵니다

향며 흘크／＼ 늦기며 눈에서 눈물이 평도라뚝／＼ 썩러지더라

늑은부인은 의성에과부부자로 유명훈상동김시인디 소경력을 디강말향즈면 젊
어서는 소박덕이 중년에는싱과부말분에는것늑은이라 즈아시로 근면져축하여

재산이 유여하고 또 자기의 이원하던 소정을 미루워 불상한 사람의게 저선사업
 이만코 이근년이티로 부인스회가 차차열리며 종교이니 학교이니 실업이니 유
 지선스의 피가 마르고 기명부인의 해가 달도록 가유호설하는판에 가장유력한
 터이라 니념에「오」짐작하겠다 더가 시골살던니가 활짝거들고 나섰는것을보
 니 여간남즈보다 담디하고 또인스범절을보니 사름교제를 잘할터인디 그슬퍼
 하는것이 피상하다 아마 그남편과는의 합지못해서영녕 닷도고 화스김에 구경
 나선녀인이로군 나의허려던일도잇고 첫지사름을구하려고 이번에도 서늘가서
 소키잇는디로 몇사름을보니 학교출신은 물정에어롭고 외국갓다온이는 눈만
 높다 적은리히를몰나 큰일에 랑피홀모양이오 기성출신은 과첩은하여 사름교
 제상에는 민활하나 물건디접이 소홀하고 너무 어덤빙히서 제법즈음잔흔 큰
 거리는 업을뜻하기에 허헝흔줄판 알앗더니 우연이더를 만났스니 아모커나
 간청하여 우리집으로 다리고가서 그리력도못고 그스상도알아 피츿이합하
 면 그영업을 식혀보리라」하고 잇더니 어느듯 기성역에 도착하거늘 내려서

늘은부인이 젊은녀인을 향하여「딕네성씨는 누라하오」 「리춘희라함니다」 나
 는 상동김씨라하오

(김)어티아시는디로 가지지아니허려거든 내집으로갓치가는것이엇더하오

(리) 예

하고 잠시간생각하여 보는데여러번 놀난가슴이라「더도잡된로파나 아닌가 그
 전에 드르니사 송도는 과부부자가만라더니 이마누라는 행동이 즈음잔코언어
 가 안상하니 의심이업다 가보아서 잠것의집이면 나셔지」하고 사례하는말이
 「더만사름을 이갓치돌보아 딕에사지가자하시니 감스합니다」하고 압셔거니뒤
 셔거니 소셔문등으로 사현넘어 출교근너 상동으로드러왔더라

데이십이회

기성은 자력으로 상업에종사하여 남즈로말하면 나히열두세살브터 동스하는집
 이나 좌시하는전에 스환단녀 그주인장의명령을순종하고 상업을견습하여 몇
 히근고를치른후에 주인의 초인이되어 좌시도하고 또외시골노 송방(松房)도

내고 큰장스 적은장스군이 되어 흥리하는 고로 조선심슴도에 무슴물건이던지 미
 사하는곳에는 키성사름업는데가업고 키성녀인전례를 드러말하면 과반수는외
 방나아가 장스하는 집녀인이라 부상티고의 집안규모도 절용절검하여 부의부
 하는일은 초치물론하고 남의조본으로 장스하는집은 그남편이 가용돈을보너
 되 그것만바라고 잊지안코 쳐디를싸라할수잇는디로 제각기장스하여 압뒤집
 이 서로장스하여 물건을 서로팔고 사는사이에 리남겨살고 심지어악의악식하
 며 지물모고사는 풍속이긋은고로 시장이라던지 상점에도 녀인이즉점으로 팔
 고사는습관이 족곰도고이씩지안코 리히관계는 여간남즈가 쓰르지못하겠더라
 공동리이에 티주의를쓰는 신상(紳商)들이 상업을 리랑코저하여 저금조합을
 발기하여 고본금모집에 실업가부인의 협의로 부인상회를 설립하고 상동김시
 가주무가되고 업무에상당흔녀스무몇기인을 응모하려하되 일변으로 고본금
 도닉고 상업에티하야 리히도갓치하즈던터이라

김사가 리춘회를 자괴집으로 청하야 드러온후에 관곡히티접흔후 위선녀인지

봉소 직조소 럽식소 신쇼설 제주는집 월수례계주는집으로 한밭당도라 녀학
 교에드러가보니 괴부금방명록(寄附金芳名錄)에 과반수는 부인의찬성이라 또
 강설안을보니 학도의 의복이 검소하고 규율이정제하고 녀교스는 설명이도
 저하고 스무설에는 로성흔남즈교스가셔무(庶務)를협찬하더라
 초례로 구경흔후에 상동으로도라와 김사가 춘회를티하야

(김) 나는무를 말이잇건마는 죽기시못흔것은 무례흔듯하기에 이제무간흔모

양으로 말을내지오

(리) 쓸갓흔더게 이다지 과념하심닛가 천덕어머니 만나 뵈나달지안심니다

(김) 내가뜻업시 청흔일이아니오또는내가 이제상을 혼즈흔은스름이 억원흔
 스정을보면 어티서지돌보아 출성각이잇서 실스름은취치말고 리력을말하엿

스면

(리) 예-예

하며속으로 잠스간 생각하되

이마누라가 과연지산가로 신스상도 만코 저선스업을 만히 하며 각식공업이던지 상업이던지 또다른 스업에 유력하고 학교에도 찬성이 적지안으며 실상으로 나를구제하고저하는디 내가실스를 말아니할수업다

하고 좌를곳쳐안즈며 오장에서 우러나오는 슬음을 익이지못하야 두눈에서비오듯하는눈물을 싯츠며 「처음과부되어 천명사리하다가 동리녀학교에서 공부하고 서울노동부가는 길에서 약한의게 죽게된씨에 남학도가 구히주어서 남디문역에서 치하하려다가 인스디답도못듯고 헤어지던말이며 학업을성취후후에 영업을주의하고 녀즈강습소에 입학하여 공부하다가 괴숙스로파에 흥게로퇴학권고도 당하고 천정오라비의 절의도당하며 밤에또위급할욕을면하고한양공원에서 자결하려다가 또속아 기성영업하는년의 집으로신을녀가서제반약증을받으면서도 한갓원슈를잡고 죽을뜻이잇서 칼을품고 괴회를기다리더니천만뜻밖에 늘스모하던 남학성 곳자괴를 죽을데서 구히주던 류제형이 잡류의게신을녀드러왔기에 죽기로써 늦치안아빅년괴약을 밋고 그몇철후에 속신하여 빅

라고 강화월곳으로 내려가거접하고 살다가 또몸슬년놈의 간계로 성리별을당하고 또썩장이할법의게 속아인항으로 내려가강포의 욕을당하게된 경우에도략을쓰고 몸을썩쳐 이곳까지 왔다가 당신의 즈비지심으로 관곡히 디접도받습고 잊처럼 하정을무르시니 황송함을시다」 하고 통성이나오거늘 김서가어로만지며 또눈물을 흘니고 위로하는말이

이제는 니쌀이라하겠다 너도날다려 슈양어미라하려무나 네스정이 미우어울겠는다

그러나 스름이 살다가 그런일 또당할가 두렵다

니집에서 서로의지하고 살아보자

네말을드르니 처음목덕흔 괴회가잇고 즈금위시하야는 슬워마라

나도젊어서는 슬우니 즐거우니하다가 다시성각흔죽 세상일은여지로할슈업고 살림에자미붓치니셔 도로혀맘에 걱정이업더라

너도위인이 편협한녀인은 아닐다 왕스는 엇지되었던지 장리일이나 예비하

여보자

류성만나는날도잇슬터이오 천덕오리비도 만날슈잇고 누명버슬슈도잇겟다
맘을안정하고잇서라 너가잠스잔 어디다녀오리라

학교나가더니 한이식고여 양쪽지흔 부인두세분과갓치 드러와 상견례(相
見禮)를 한후에 부인상회에 티흔의론이나오는디 춘희의리력과 즈격을서로이
야기흔결과로 부인상회스무장으로 추천되여 시무케되엇더라

즈본금얼마이고 잡회미일이 얼마치그물화들의씨이는것과 광고는엇지<>하
고 부고는엇더케할것과 피츠거리할상점에 실부실과 또잡용은 무엇々々성겨
은 무슨비례로 볼것을낫々치 의명흔지몇칠후에 영업할곳으로 나아가착수하
니 음식장스 반찬장스와는 달나 부상되고며 관인신스들은 찬성하는 의무로와
다가고 학교々々남녀학도들은 저절노물품용달노알고 誇은마누라 靚은씩서번
부상하물론하고 아논이는 부조점인스고라고 모르논이는 구경점흥성하라드
러오니 스무들은 눈코뜯쳐업서 물건팔고 처부하누라고 밤낮분주하다가 한달

학 의 성

학

에네번식 휴업하는날이라야 되를쉬이논터이니 춘희의무한흔 원정은서려담아
잇다감々々々 가슴이벌떡々々하더라

데이십습회

사람이 누가허물이업스리오 곳치면귀하고 뜻이잇는자 | 일을 맛춤너닐우는
지라

류성이 공업학교미술과에 입학흔후로 불패풍우하고 전심치지(專心致志)하여
일기년속성으로 졸업하고남상티의 운동으로종로에미술공장소를 설립하고기
술에 정밀하며 업무에 근면하니 그명예가 정향에장하더라

그리력과 현금저취하지아니흔줄을 아논사람들이 미과들듯코 친구의게소기하
여취집귀수는 제덕이엇더하나 혼인하자 어나학교졸업성은 학문이약시々々
하니 장가들게하자 여러가지로 청혼하는디 류성의 소답은 「아즉박부지도아
니하고널니알아본후에 뜻을딩하겠다」하고 미러가다가 하로는 종종흔시간에
혼지탄식하는말이

의 성

시간이법이오 일이벼살이라 스무에 퇴를쓰니사 다른성까날여가가업섯고나
 남즈가적악(積惡)은 안히를내바리는 적악에서 더할것이업고 녀즈의이정
 (哀情)은 남편을싱리별호는 의정에 더할것이업슬지라
 아—춘희여 이원도호고 처량도호리로다 피츨박구위되엿스면 여간불미호일
 이잇더라도 용서할것이오 또스정도 해아려볼것이며
 내가간악호 무리의게속아 그의게 참아못호노릇을 호듯도호다
 피츨갈나설썩에 또만날사이잇슬터이니 외면호지말나호엿서 그말을싱각호
 즉별비포를츨린듯호다 필연코되도회로가잇슬터이라
 이제는 만나면 선디지호리라 내가업무에디호야 몇칠결공을호되라도 쉬운
 디로 경부선이나 경의선으로 한번실업시시츨도호호담녀오리라
 호고 괴회를엇고저호던츠에 상점문밖그로 썰녕사사호며 신문을척접어드러터
 리는디 반겨보니 신문분전인은 류성을시동으로신러넛던 신니풍이라 썩여나
 아가붓잡아드리며

(류) 이거누구야 웨모르는데호고가나

(신) 과연말이지 너무붓그리워 연스못호소

(류) 엇저호다가 이모양이되엿서

(신) 응—그썩브터 주석에 침혹호여 똥장이이노릇이지

(류) 과연성이장호군 엇저호던지놀고먹지마라야지

(신) 소이로 친구들디호야 북그러온지 만지 내가죄를속호려고 이천호버리라
 도호는길이지

(류) 시방도 화방출입호나 또신문분전호지 몇칠이나되엿나

(신) 어제오날썩일세

(류) 그러면그일은 고만두고 우리공장에와서 스무나보려나

(신) 코마온말숨이오마는 이놈의신분으로 감당호수업스며 주무가밋겔소

(류) 친구가과연의괴잇는말일세 다시말호것업지 러일브터갓치지너보세

(신) 과분호디접도밧고 바라던맘에 지는말숨이오 친구인도호는디로 호발

계업소

하고 두눈에서 눈물이 팽돌며 진정에서 우러나는말이「류형이 이놈을보는날에는 의례척망하고 절교하라 생각하였던것이 도로혀 북그럽소 이척신이 친구가 건져주려하는 말슴에 감동되오 오날이라도 이일을 뜻코오리다 그러나 분전하던 신문은 다주고와야하겠소」하고 다시 셤령 셤령가더라

류성이 신문을 시면브터 내려보더니 잡보란뒤에 지성대일공립보통학교뒤에 학생수조품전람회를 여울고 또 지성군외네고을농산물품평회를 겸설한날이그잇흔날이라 또 지성고물진렬소가 있다 하였거늘 맘에 반가운것은 고려고적과미술품을 구경할것이오 학생의수공이 엇더한것을 전람할것이오 농산물의우열을 알아볼것이오 남녀간에관람자가 만홀터이니 도흔기회라 이날에여러사무의게서무를난화맛기고 간략한형장으로 후룩고투에 소레모쓰고 가방흔나에부료를 첩노아지우고 나서 인력거를부르니 지나던인력거군이 썰니와서 턱속여눓코 허리를굽을하며「예의어서 탑시오 어디온닛가」하느니 자제본죽 이도

또흔시등으로 신을고가던 안색동이라 허허우스며「남아하쳐불상봉(男兒何處不相逢)고 이 친구나를 자제이보고 말하소」하니 안색동이 가 흘뭇흘뭇치어다 보더니 썸짜늘나 고기를뚝숙이고 들지못하며「이놈은 가겟습니다 이런몹슬놈글새막버리를 하더라도모르느곳으로 같닐이지키암이 데박회도는 모양으로에서만생々돌다가 이런북그러운일을 또당하지 호령맙시오」하면서 인력거체를 축혀들고 가려하거늘 류성이 그씩에는 하느말이「나도밤분길시오 친구도어디로가려하니 내가 탄일레로 남덕문정거장으로 슬슬가며 우리정답이나하세」

훈후에 인력거업으로 갖치가며

- (류) 언제브터 이 버리를하나
- (안) 두어달되었지만은 신세가말아나지 이선진정력은웨곳소
- (류) 다른영업은 할수업논터인가
- (안) 아모렘오죽하야 소짐싱 말짐싱모양을하세
- (류) 그리남즈가 달니 변통할수업셔

(안) 이런말씀보아 이 전년에길 잘못드러 집안지물업시고 학문업고 친구업스
니 두수변흥업셔 이노릇을흥면셔도 맘이나 바로가지고살다가 죽지는작당
이지

(류) 석동이 친구가 그리업셔 장안에어질더북흔것이다 석동이친구갓흔데
(안) 그말마오 돈냥잇셔 쓸씨말이지 지금어나놈이셔셔 말흔마디흔다던가 나
역시구구히 인스아니하네

(류) 그러면 자네뜻은 고상하네마는평성이버리를 할잔말닌가

(안) 다른성의할것만잇스면 하로단십전이성겨도 그일흥지인려거르려셔 하로
빅원이수입흔디도 고만돌러이지

(류) 그러면 불게하고 수일후에 우리공장소로오게 나는시방기성을 가는길이
니서몇칠후만나세 아마신니풍 그친구도 만나게되리

하고 도라보니말셔 정거장밖그로온지라 죽기속에서 지화오원과 명첩한장을
니주며 이돈은 갖싸가위션 시량이나 붓티고 리일이라도내명첩가지고 우리공

장소로가셔 스무원다려말흐면 내가업셔도식히는 날이잇슬터이니 아모도록부
지런히히보제」하니 안석동이 맘에감겨하여 눈물을흘니며 무슨말을 또 할려하
논디 북형추시간이되여 요령소리쌩그렇스스하거늘 류성이간단흔말노

이는 다사나히 맘이아닐다 나는게셔더할감동이 잇는사름일제 어셔 도라가
게하고 추표를얼는 사들고 이등익초로 오르더라

데이십스회

류성이 그날오후북형렬초로 기성역에 도착흔후 내려고려려관에서 류속하고
잇흔날 오전십시에 농산물품평회에서 기성 무비추림금 디조와 풍덕벼
장단콩 파주팻 교하쌀과 은스수산장 누에싹치며 곡식이만이와 흥슴제조소흥
슴과 슴업조합소빅슴과 농업모범장 각식과실치소와 고금아 담비 호박씨지초
레로관람흔후 또 학생수조품전람회에 학교스구품과 남학도의 작문 습즈도
화 즉조물이며 녀학도의 침공 편물 가화를차례로 구경흔후에 또고물진렬소
로가셔 고려자리며 고화(古畵)며 금은동철 옥석으로 만든보물이며 냇사름의

의관까지 관람하고 신시가로나서 두루다니다가 문득바라본즉 부인상회(婦人商會)간판이 달렸거늘 맘에놀나흐는말이

과연듯든말과 갖치키성이과연상업계가 미우 흥왕한일이 보인다 서울도아즉 부인상회가업는디 이곳에서는보갯싼 아마미술품이 만히소용되렸다 그주무가누구신출도알아볼겸 엇더케 츠리고잇나보리라

하고가서보니 위치도잠스간넌외스상이잇고 집도정결한디류리창안으로 보이논물건이 전여미술품이라 성의가흥호드시 반겨문을두세번두다리고 출입구(出入口)로드러가니 반양복으로 츠리고 안젓던부인 한분이 내려서례(禮)하며「이리옵시오 교의로안즈십시오」하거늘 류성이모즈를 버셔들고 답례후에(류성) 주무가누구심닛가

(부인) 주무는아니오서고 스무장은안에 잇습니다

(류성) 본인은공업을하는고로 귀상회가반가워뵈옵고저합니다
하고 명첩한장을드리니 그부인이바다들고 안으로드러가더라

이덕춘회는 방안에서 치부하다가 그명첩을바다보니「류세청 권서(肩書)는 경성미술공장소장이라하엿거늘 눈아번썩여 반가온중 또의심이 나 혼즈말노 성명습스즈는 똑갓흔데 권서는의아호도다 나의남편은 공장도모르고 맘도련약한디 이럿케될수는 업슬터이오 다른사름갓호면 나를보즈고홀리도업슬터이라 죄우간나아가보리라

하고방에서 나서바라보니 의심업는 자기남편이라 반가온맘에 도로혀선뜻하여 갑작히나오는 우름을 츠노라고 입을술다가물고 두손으로 얼골을가리고 도라셔떨어나오는말노「에그 오셨네 엇지알고 츠져오셨소」하며 우름뺏치나오미허리를 추지못하여 주저안거늘 류성이 썩마조바라보고 듯다가 손에들엇던 모즈는 싸에룩더지고 그엽헤빗스안즈며 다른부인씩 「설레올시다마는 이녀인은 너의잔이올시다 허물마시오」하고 인스겸위로하는말이

여보나를 허물마시오 또흔낫호로 나를볼것이지 얼곳서 헤지던날에 할말을
니젓소그려

나도사람인데 일시실수혹인지는 모르되 그경광을 당하고야 춘희씨의게 원한을찌치게되지안케스소 그시로 회기중여 오날々실업가로 피츠만낫소 데일관계되는말은 내가아즉 다른녀인의게 장가들지아니호엿소 행복을받는자의게는 곤난이먼저잇는법이라 우리녀외가 이제는화락히 지낼 만하는데.....

호거늘 춘희가 눈물을씻고 쯤고리고안즈며 온화한말노

이천흔것의가슴에 서리고미천것이 가장의 말슴흔마디에 봄눈슬듯호고 이 제서지저바리지아니호고 츠져오신것만 감스흐니다

이상희에와잇는것도 우연치안은일이오 츠져오신것도 이상흔괴회를시다 전 후스연은 서々히엿좁고져합니다

호고 방으로 영접호려호는디 류리창문을드르를열며「여복시오 나으리 앓씨나 좀보구료 제상에괴이흔일도다 만소 나으리는 더앓씨를 죽곰도의심마시오 이 늙은련의죄을시다」호거늘 도라보니 이는인항할멈이라 춘희는다만호는말이

더원수의늙은이가 예는왜왔스사

호고 썬々썬거늘 류성이 덩디히호는말이

「그리 할멈죄라니바로말하」

「월곳서 말리올시다 앓씨는 그런죄가업셔요」

「응—그러면 할멈이 썬장이수단을 부렸단말이엇다」

「예—홍주사는 손종일을 운양셔만나신일이잇습닛가」

「어—잇셔 그친구는미우 즈음잔흔걸」

「이년도 그놈의 즈음잔흔게에 적악만호고 감옥셔귀신이될번호다가 지금은 다시그런중미는 아니섭니다」

「으—그사람이 앓씨다려육도호고 나를썬렸셔 제상에사괴여놀음잇나 그리 셔 또엇지호더란말이야」

「인항제집셔지 유인호여 억지로살녀호다가 일이아니되엿셔요」

「허々그런치 그말은 그만두고」오날할멈은 웨여괴와셔」

「그말다히무엇하게요 몇히를그천호노릇을하엿더리셔 그씨위는별노모를것
 이업지요 인항셔알던것들이 이곳에몇치잇셔 한번구경만오라하던츠에 지성
 좌(開城座)유일단(唯一團)신평연극이 하도장하다가에 어제와셔구경하교
 오날 신시가를구경하다가 이 상점문에 사람이만히 선것을보고 와듯고보
 니 제가 조복하니호수업셔 죄를당할작덩하교 이티말씀이오」
 하교 북々스좌하는티 별안간 류리창을 와락열고 드러셔는남즈가 하는말이
 이아누나야 죽지안코 살아만나게되였구나 그덕혈셔를보고 죽을라와구하려
 다가번셔죽은만줄알고……

하거늘 춘희가 책나려나 금쳐잡고「엄바~ 이것이웬일이오 저는아즉사라문
 별만드레고 엄바의낫만 짝기게하너 죄스무석이외다」하교동곡하거늘 위로하
 는말이

누나의일이분홍고 절등하다마는 관계업다 네가신분만똑々하면 고만이 지티
 관절 더양반은 구구시란말이나

하며 휘~도라보더니「자~아 우리가 년전에 빙학산뒤에서 만나본법흥구료
 나는바로 춘희의 오리비리춘화요

하니 류성이티답하되「그러면 나는춘희의 남편되는 류제형이오 우리가 친남
 미간이로구료」하니 춘화가 썰々우스며「니 무나잘되였다 처음에 악한의게죽게
 된것을 살닌사람과갓치 살갓지 나도이번에 농산물출품하교 구경왔다가 시원
 호광경을 다보노자~아 우리집으로다가봅시다」하니 관광제인이 청송하는
 말이

이와갓치 된일은 과연 춘희의 일편심(一片心)이라하더라

鶴의聲 下

大正三年八月十五日 印刷
大正三年八月二十五日 發行



鶴斗聲下卷

定價金二十錢

京城府中部寺洞十一統二戶

南宮濬

京城府仁義洞五十七番地

金聖杓

京城府公平洞五十五番地
電話六七八番

誠文社

京城府寬勳洞七十二番地
電話二四五六番

發行所

唯一書館

印刷所

印刷者

發行者兼

